



‘흑산 오징어’ 신안 명물 되겠네

난류성 어류 서해 유입 급증... 지난해 469t·올 두달새 333t 어획고

동해안 명물인 오징어가 신안 앞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히고 있다. 어획량도 매년 급증하면서 서해안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냉수대가 자리잡은 동해 대신 난류를 따라 서해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강원도와 경상도 오

징어잡이 배들까지 서해를 찾고 있다. 신안군은 1일 “오징어가 신안군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대량으로 어획되면서, 바다의 귀족 흑산홍어에 이어 흑산오징어가 지역 명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는 어선은 70여척으로, 그 중 매일 50여척 이상이 위판에 참여하고 있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박스(20마리)당 2만3000원에 위판되고 있으며, 추석을 전후해 높은 어획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 수협에서는 어획량 증가에 맞춰 저온저장시설 가동과 저장용 얼음비축 및 조업에 필요한 유통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0여척이 조업해 219t(13억원)의 어획고를 올린 이후 지난해에는 469t(2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33t(15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흑산홍어에 이어 흑산오징어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최근 신안 등 서해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서해안 항구마다 오징어잡이배가 정박해 있다.

전망된다”며 “저온저장고, 왜빙로 등 수산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tee@kwangju.co.kr

액비로 축산농 분노 해결

마이크로맥스, 발효기 특허... 처리비 50% 절감

나주지역 업체인 마이크로맥스가 개발한 ‘순간액비발효기(MAX-AE 시스템)’가 축산농가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인 분뇨처리 비용의 새로운 대안이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는 순간발효 액비와 기술과 액비 순간발효기 등에 대해 이미 특허출원을 완료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일부 축산농가에서 실험까지 마쳤다.

‘순간액비발효기’는 고액분리된 액비를 순간 발효해 마이크로버블시스템으로 분해함으로써 분뇨 슬러지를 신속하게 분해하고 악취를 제거하도록 설계돼 있다.

분해된 퇴비는 냄새를 없애는 소취제로 재사용하도록 배출량이 줄어 외부로 악취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두의 돼지를 키우면서 매달 300~350t의 분뇨가 발생한 나주의 한 축산농가에서는 순간액비발

효기를 설치한 뒤 자연방류할 만큼 분뇨처리가 완벽해지고 처리비용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차상화 대표는 “호기성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공법 및 시스템을 개발해 액비를 단시간에 분해해 냄새 없는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분사 내 청소수 및 양액, 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년간 연구 시행해 순간발효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맥스 측은 오는 10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간액비 발효기’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맥스는 ‘호기성 호열균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발효물 제조방법 및 발효물을 이용한 축사의 악취제거 방법’, ‘미생물(호기성 호열균군)을 이용한 동물의 친환경 살처분 방법’ 등의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 또는 출원한 바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지난 27일 담양군이 금성면 원천리에 지난 2009년 조성한 ‘대숲맑은 조기햅쌀 단지’에서 박희봉씨가 첫 햅쌀을 수확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담양 첫 햅쌀 수확 43ha 5억여원 수익 기대

담양군이 조성한 ‘대숲맑은 조기햅쌀 단지’에서 첫 햅쌀을 수확했다.

군은 1일 “‘대숲맑은 조기햅쌀’ 생산단지에서 지난 27일 금성면 원천리 박희봉 농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햅쌀 수확을 위한 벼베기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조기햅쌀 단지는 군이 지난 2009년부터 농가소득 높이기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금성면 봉황단지 등 43ha에 조기 육묘를 실시해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예방, 튼튼한 육묘로 모

내기를 실시해 조성했다. 또 병해에 강하고 밥맛이 매우 뛰어난 ‘운광벼’ 품종을 선택해 폭염과 고온다습 등에 도 약 250여t을 수확, 5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첫 수확을 시작으로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해 올해 추석 소비자들의 식탁에 대숲맑은 햅쌀이 오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성농협 RPC에서는 생산된 조기햅쌀 전량을 계약 구매하고, 4·10kg단위의 소포장 가공해 전국 롯데슈퍼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목포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목포고용노동지청은 1일 “추석을 대비해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go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qiffuwn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지원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진도, 전국 첫 ‘민속문화예술특구’

5년간 310억 투입 11개 사업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승인됐다.

군은 1일 “지난 30일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가 민속문화예술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승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으로, 지역 내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술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명품화하기 위한 작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31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진도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사업,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락(樂)&휴(休) 민속문화 공간 프로젝트 사업,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사업 등 4개 추진과제에 11개 특화사업을 벌이게 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군은 ▲진도도움의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

허출원 우선 심사 ▲육의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진돗개 테마파크 운영 조기 추진 ▲브랜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신청·공모 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로 국비 확보에 유리하고, 특구 면적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구들장 논 세계유산 등재 한·중·일 전문가 뭉친다

세계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한·중·일 3개국 농업유산 관계자들이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EAEAHS)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하는 ‘청산도 선언’을 채택했다.

완도군은 1일 “지난 27일 ‘청산도 구들장 논’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청산도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워크숍에 참석한 농업유산 전문가들이 협의의 체널을 구축해 연구, 교육, 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한국 농어촌 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일본 유엔대학 다케우치 교수, 중국 과학원 민 박사 등 3개국 농업유산 전문가 2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 협의체는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 보급·확산, 홈페이지 제작 및 뉴스레터 발행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이들은 2014년 4월 중국 하이난에서 제1차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고 3개국이 매년 차례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김중식 완도군은 “동아시아 농업유산 연대(EAEAHS) 협의체를 창설하는 ‘청산도 선언’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동아시아 농업유산은 물론 세계농업유산의 지속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